



서울국제 판촉물전 다양하고 새로운 판촉물 선보여

제21회 서울국제 판촉물, 선물용품 전시회가 지난 3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C홀에서 열렸다. 330여 업체가 참가한 이번 전시회는 행사기간동안 약 2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판촉용품, 선물용품, 문구, 사무용품, 캐릭터상품 등에 걸쳐 다양한 부문에서 많은 제품을 선보였다. 인쇄산업의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전시회에는 POD인쇄의 진전과 함께 판촉물로서의 새롭게 가치를 인정 받은 포토북 및 개인용 캘린더 등이 새롭게 각광을 받는 아이템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실제로 포토북을 선보인 성진에드컴

은 전시회 기간 동안 약 2,000명에 달하는 고객과 상담을 진행할 정도로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성진에드컴의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로 인해 다시 한 번 포토북시장의 성장세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소량다품종의 경향과 나만의 것을 찾는 개성주의가 성장 동력인 것 같다고 전했다. 21회째를 맞이한 이번 전시회는 한국판촉물제조협회(KGIA), 코엑스(COEX)가 주최했으며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이 후원했다. 이번 전시회 기간 동안 관람객들의 관심을 끈 주요 참가업체들을 소개한다.

템플릿 이용 간편한 포토북 제작, 성진에드컴

(주)성진에드컴(대표이사 이정희)은 다양한 템플릿을 이용해 간편하고 쉽게 자신만의 포토북을 제작할 수 있는 스타북(Star Book)을 선보였다. 다양성과 간편함을 전면에 내세운 스타북은 베이비, 일상, 여행, 연인, 웨딩 등 폭넓은 경우에 적합하게 적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며 형태도 거의 제약 없이 작업을 할 수 있다. 복잡하고 추가적인 작업이 싫다면 기본형 템플릿을 그대로 사용해도 좋으며 자신만의 개성을 살리기 원한다면 수정을 하거나 추가하여 제작하는 것도 가능하다. 애플리케이션 방식의 포토북 프로그램 사진을 자동으로 배열해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신속한 작업이 가능하기에 고객의 짧은 납기에 대해 잘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웹하드, USB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작업과 보관이 가능해 작업 장소에 있어 거의 제한이 없다고 회사측은 전했다. 성진에드컴의 관계자는 “작업이 쉽고 간편하지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프로그램 활용가이드를 동영상으로 제공하는 등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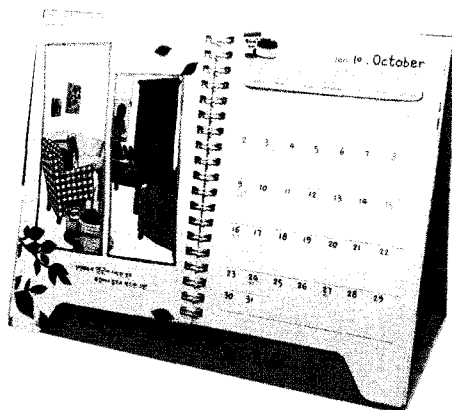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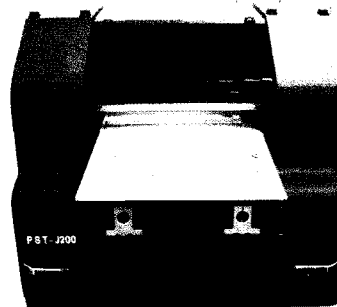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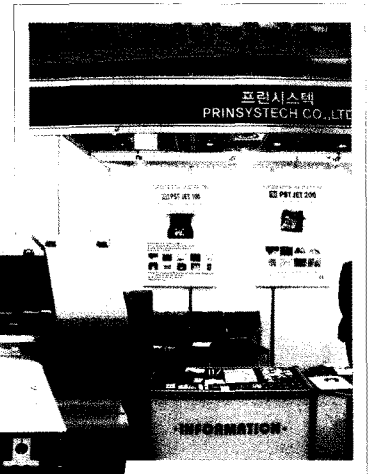


디지털 평판 프린터 디자인-아트 선보인 잉크테크

잉크테크(대표 권기석)는 평판 디지털 프린터인 디자인-아트 시리즈를 선보였다. 디지털인쇄의 특성을 최대한 살린 즉석 인쇄, 다품종 소량인쇄를 기본으로 간편한 작동, 공간의 최적화, 실질적으로 모든 이미지의 표현을 가능하게 했으며 저렴한 유지보수 등으로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회사측은 포토북, 스크린인쇄, 상업용 인쇄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에 걸쳐서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차별화된 디지털프린터 PST 젯 200, 프린시스텍

벤처기업인 프린시스텍(대표 조성배)은 사인물, PVC, 손거울 등에 인쇄가 가능한 디지털프린터 PST 젯 200을 공급하고 있다. PST 젯 200은 오랜 수명을 자랑하는 엡손의 피에조 헤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5760×1440 dpi의 높은 해상도를 지원한다. 콤팩트 형의 몸체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슈퍼 A3사이즈인 329×550mm의 인쇄가 가능하며 친환경성 잉크를 사용하여 환경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인쇄가 가능한 두께는 100mm 인쇄속도 역시 52초당 사진 1장을 출력할 수 있다.



특화된 캘린더 선보인 토리디자인

토리디자인(대표 윤영철)은 개성이 넘치는 탁상용 캘린더를 선보여 관람객들의 호응을 받았다.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어 공책처럼 옆으로 넘기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수준 이상의 다양한 디자인을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플래너임에도 불구하고 세워놓아 캘린더처럼 일정을 관리할 수 있게 한 ‘꿈의 전당 플래너’로 타사 제품과의 차별화를 구현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실용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토리디자인은 고객에 대해 끊임없는 아이템과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